

삼성전자, 불산 설비보수 허위발표

1월28일 0시13분 1차 보수 진행 ... 사망자 내산복 · 방재복 미착용도

삼성전자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로 숨진 박씨(34)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1월28일 0시13분부터 3차레에 걸쳐 6시간 동안 보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산가스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됐던 시간대에 8분 동안 평상복 상태에서 방복면만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1월31일 “확보한 사고 당일 CCTV 화면과 작업자들을 대조한 결과 보수작업은 1차 1월28일 0시13분-3시21분, 2차 4시36분-4시44분, 3차 4시45분-7시45분 3차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는 “1월27일 오후 1시22분 최초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38분부터 STI서비스 작업자들이 수리작업을 했다”는 삼성전자의 발표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또 1-2차 보수작업을 끝내고 오전 6시까지 현장정리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주장과 달리 숨진 박씨는 28일 0시13분 사고현장(불산 탱크룸)에 도착해 흰색 내산 가운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3시21분부터 2시간52분 동안 1차 보수작업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산이 또 누출됐다는 연락을 받은 박씨는 현장에 다시 도착해 평상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4시36부터 4시44분까지 8분간 2차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작업 당시 사고현장 내부에 불산 증기가 뿌연게 차 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CCTV 분석에서 확인됐으며, 박씨가 사고현장에 불산 증기 노출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내산복, 방재복을 입지 않고 작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작업 때는 박씨가 방재복과 방독면을 모두 착용한 채 기기 작동을 점검하는 모습이 CCTV 분석에서 확인됐다.

3차 작업을 마치고 나서 탱크룸 밖으로 나온 박씨와 다른 야간 작업자들은(부상자 4명)은 가슴과 피부에 통증을 호소해 자체 응급센터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오전 7시50분 병원으로 이송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탱크룸 내부에 설치된 CCTV 2대의 촬영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31>